

##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식생활 교육내용 및 내용 전달 방식 분석

이영은\* · 윤지현\*\* · 이수희\*\*\*1)

\*불암중학교 교사 ·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선임연구원

### Contents and Pedagogical Styles of Food and Nutrition i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from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Lee, Youngeun\* · Yoon, Jihyun\*\* · Lee, Soo-Hee\*\*\*1)

\*Teacher, Bulam middle school · \*\*Professor, Dept of Food & Nutr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Korean Institute for Consumer Educ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contents and pedagogical styles of Food and Nutrition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could promote constructivist learning. For this, Food and Nutrition contents of 12 current textbooks were analyzed, based upon the learning factors derived from both a practical problem-focused curriculum from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and the current home economics curriculum from the objectivist perspective. Pedagogical styles of the texts and exercise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neutral informative, injunctive, persuasive, and participative, out of which ‘persuasive’ and ‘participative’, in particular reflect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Food and Nutrition contents showed that of 14 learning factors, 13 of the textbooks corresponded well to the current curriculum(92.9%). On the other hand, Out of the 26 learning factors, 18 of the textbooks corresponded to the practical problem-focused curriculum(72.4%). Classified into each stage of the practical problem solving processes, only learning factors related with ‘the concepts of the valued ends’ were fully covered. However, the other learning factors related with the concepts of ‘the practical problem’, ‘the context’, ‘the action’ and ‘the consequence’, that is the factors particularly related with ‘the concepts of the context’, were not properly addressed. Besides, learning factors were not addressed from diverse viewpoints, especially from the social perspective. Second, the analysis of pedagogical style related to Food and Nutrition illustrated that the neutral informative(59.9%) in texts, and the participative in exercises(60.4%), were most common. However, persuasive and participative were insufficient in texts(22.1%). Furthermore even though the exercises, are more likely to be described from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nearly none of the exercises was considered from the social perspective.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Food and Nutrition in Korean home economics textbooks need to reflect constructivist learning better.

Key words: 구성주의 관점(Constructivist perspective),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Practical problem-focused curriculum), 가정교과서(Home economics textbook), 식생활 교육내용(Food and Nutrition contents), 내용 전달 방식(Pedagogical styles)

1) 교신저자: Lee, Soo-Hee, 12 Mapodaero, Mapo-gu, Seoul, Korean Institute for Consumer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l: +82-02-713-8605, E-mail: kywonk@unitel.co.kr

본 논문은 2019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지원금을 받아 수행되었음.

## I. 서론

교육현장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구성주의는 이러한 변화의 기저를 이루는 패러다임으로서, 학습을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설계해 나가는 구성과정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객관적·절대적인 지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객관주의와 달리,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의미나 관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학습자의 경험과 관점으로부터 의미를 부여하여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Kang, 1997).

이러한 구성주의 관점은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 철학과 접점을 이룬다(Ryu, 2000). 즉,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 역시 지식이 습득되어야 할 대상으로, 학습자의 인지 활동 과정에서 지식이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구성주의와 비판과학은 현대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두어 학습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와는 달리, 2007 개정 이전까지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가정학의 하위 영역인 의, 식, 주, 가족생활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험·과학 관점의 개념 중심 교육과정이었다(Lee, S. H. 2010; Oh, Lee, & Lee 2011; Yoo, 2006). 이후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부터 이 교육개혁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패러다임인 구성주의 관점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진은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과 개념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두개의 주요 관점에 대한 신념의 차이가 매우 커, 결국 절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Yoo, 2006). 그 결과, 2007 개정 이후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중 성격, 목표, 교수 방법, 평가 영역에서는 구성주의 관점과 접점을 이루는 실천적 문제 교육과정 관점이, 교육 내용 영역에서는 개념 중심 교육과정 관점이 기저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육과정 구성요소들 간에 관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 구성요소들이 특정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내적 일관성이 저해되어 교육 목표 달성이 어렵다(Brown, 1978). 이에 그 경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은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의 섭취증가와 아침 결식 및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영양불균형과 비만 및 체력의 약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Lee, 2015). 이러한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로 학교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학교식생활교육의 주 담당교사인 가정교과는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0). 이에 가정교과가 학교식생활교육의 중추로서, 구성주의 관점에서 식생활 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과정의 의도와 내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시켜 놓은 공식적인 자료로서, 교육 실행 과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Chu, 2006). 그러나 교과서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집필진이 가진 가치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나타나고,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서술 양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 내포된 관점은 교사와 학생의 인식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 분석 시 내용과 그 내용에 내재된 관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술·가정」교과서<sup>1)</sup> 식생활 영역에서의 연구는,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식생활 교육내용을 비교한 연구(Jang & Kim, 2017), 타 교과의 식생활 내용과를 비교한 연구(Yang, Chae, Yu, & Park, 2015) 등이 있었으나, 구성주의 관점에서 식생활 교육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과 내용 전달 방식을 분석하여,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영역에서 구성주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이하 '가정교과서'

## II. 이론적 배경

### 1. 구성주의와 가정과교육

#### 1) 구성주의와 구성주의 교육

구성주의(Constructivist)는 앞의 이론(theory of knowing)으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지식 혹은 의미를 습득하고 형성해 가는가를 일컫는 인식론에서 출발한다. 구성주의는 지식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식은 오직 인식의 주체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인식의 주체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대상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물을 해석하므로 지식의 정신활동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Park, 1999). 그러므로 구성주의는 특정 사회에서 상황적,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 인지적 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것으로 본다(Kang, 1997).

반면, 객관주의란 주관에 대비되는 의미인 객관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지식은 인간의 인식 행위와 관계없이 외부에 존재하는 고정적이고 불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구조를 가진 대상으로 본다(Lee & Kim, 2010). 그러므로 객관주의의 교육목표는 모든 상황적, 역사적, 문화적인 것을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며, 절대적 진리에 의해 현실은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Kang, 1997).

따라서 구성주의 교육관은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전통적인 교육관과는 대조를 이룬다. 객관주의 교육에서는 교수가 수업 이전에 모든 지식을 구조화, 체계화한 후, 학습자들이 습득 가능한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여 학습자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므로 교수는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학습자는 지식의 습득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객관주의 교육에서는 교육목표로 보편타당한 절대적 지식과 진리의 추구에 두어 지식의 암기와 축적에 중점을 둔다. 이에 개인의 성취를 강조한 개별적 학습 환경이 조성되며 평가는 수업 전에 설계되어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 일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구성주의 교육은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지식, 현실의 복잡함을 그대로 제시한 지식과 과제로 학습자들에게 인지적 도전을 유도한다. 그러므로 교수는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는 조연자,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학습자는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구성주의 교수 학습에서는 생활에 의미 있는 지식의 구성을 교육목표로 학습자의 문제해결력, 사고력, 인지적 전략의 습득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협동 학습 환경이 조성되고, 수업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이,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경험을 통해 지식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능동적 구성 과정을 거쳐 의미를 개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Kang, 1997).

#### 2) 구성주의와 가정과교육의 관련성

객관주의 교육에서 구성주의 교육으로의 변화는, 가정과 교육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일으켰다. 과거의 가정과교육은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목표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기술과학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었다(Ryu, 2000). 이에 Baldwin(1989)이 분류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세 가지 관점 - 기술적 관점, 해석적 관점, 비판과학적 관점-에 의하면, 과거 가정과 교육과정은 경험 분석적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관점의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과거 가정과교육과정은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객관주의 인식론으로부터 비롯된 객관주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Cho, 2008). 그러나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가정은 이성적·비판적 고등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일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교육은 가사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능, 지식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현대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Ryu(2000)는 구성주의 교육과 비판적 관점이 내재된 가정과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수·학습환경의 이론적·실제적 접점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식과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 교육목적,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기준, 그리고 두

2) 기술적 관점의 교육과정은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와 과학기술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학생들은 주어진 정보를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교사의 역할은 이미 계획된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능숙하게 접근하는 것이다(Choi, Chae, & Park, 2009).

관점에서 지향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면에서 점점 발견했다. 먼저, 지식과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구성주의와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은 지식의 상대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지식을 인식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고,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에서는 지식을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고 경험에 의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Ryu, 2000). 그리고 구성주의 교육과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교육에서는 학습 역시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자율적이고 주제적인 존재로 간주한다(Kang, 1997). 그리고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에서도 학습자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만연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본다.

구성주의 교육과 비판과학이 내재된 가정과 교육은 교육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에서도 접점이 존재한다. 먼저, 구성주의 교육과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의 목적은 현대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적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Ryu, 2000). 따라서 구성주의 교육의 교육내용은 실제 세계와 결부되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구성된다(Kang, 1997). 그리고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 역시 교육내용은 항구적인 본질을 갖는 실천적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Yoo, 2006). 즉, 구성주의 교육과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 모두, 교육내용은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인지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구성된다(Ryu, 2000). 그리고 교육방법 면에서는 구성주의 교육 및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 모두 주로 협동학습이 이루어진다.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Cho, 2008),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담론’ 상황을 형성하기 위하여 협동학습이 유용하다. 또한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 교육에서는 실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추론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이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와 비판과학의 교육방법의 경우,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은 전통적 평가인 객관주의 교육의 평가로 측정될 수 없으므로 대안적 평가, 참평가, 과정평가 등의 평가방법이 적합하다(Ryu, 2000).

## 2. 가정과 교육과정과 식생활 교육

### 1) 가정과 교육과정에 내재된 철학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부터 새로운 교육과정 패러다임을 적용했다.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은 가정학의 하위 영역인 의, 식, 주, 가족생활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개념 중심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나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부터 현행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까지 실제 생활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숙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초점을 두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Oh, Ha, & Lee, 2017). 그러므로 개념 중심 교육과정과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 내재된 철학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내재된 철학에 따라 가정과 교육과정의 초점, 가족에 대한 관점, 교과 내용, 학습의 초점,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다르다. 이를 통해 이전의 교육과정은 경험-합리적 과학 관점이 내재되어 있고,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는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실천적 경험 속에서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의 교과역량을 함양될 수 있도록 하여 ...(중략)...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색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 판단에 따른 의사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와 같이 ‘성격’ 면에서 비판적 추론 능력과 가치 판단 능력, 주도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Oh et al., 2017). 그리고 ‘목표’에서도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성략)... (Ministry of Education, 2015)”라고 서술하여 항구적인

Table 1. Home economics curriculum perspective based on the different philosophical backgrounds

Perspective	Empirical-Rational Science-Based(*)	Critical Science-Based(**)
<b>Focus</b>	Students prepare for their future roles in a single context (e.g., the family or specific job/career).	Students examine current and future roles within multiple contexts (e.g., the family, work, and community settings,) and their interrelationship.
<b>View of the Family</b>	Producers • Emphasis on technical or "how to" actions.	Consumers • Emphasis on multiple actions: technical, interpretive, reflective.
<b>Subject Matter</b>	Selected and organized by predetermined subject areas: • Food Preparation and Nutrition • Clothing and Textiles • Family Relationships • Parenting/Child Development • Housing and Interior Design • Consumer Education	Selected based on perennial and evolving family, career, and community issues, such as: • What should be done about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 What should be done about food and wellness? • What should be done about consumerism and family resources?
<b>Focus of Learning</b>	Emphasis on : • Facts, how-to skills; narrow topics • Make product or complete goal • Decision making • Hands-on learning • Paper-and-pencil tests	Emphasis on : • Broad concepts • Apply processes • Problem solving, critical thinking • Active learning • Tests, performance, and product assessment
<b>Role of the Teacher and Students</b>	Teacher as expert: students are recipients of knowledge.	Teacher as facilitator, students and teachers as co-investigators.

Note 1. Montgomery(2008), p.4.

Note 2. Empirical-Rational Science-Based Curriculum(\*) means curriculum from the objectivist perspective, and Critical Science-Based Curriculum(\*\*) means curriculum from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in this study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지식과 가치판단을 강조하고 있다(Oh et al., 2017). 또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제시된 교수 방법에서도 구성주의 관점의 경향이 높았다(Oh et al., 2017). “실과(기술·가정) 교수·학습 방법은 관련 내용에 따라 실천적 문제 해결학습, 프로젝트법, 문제 중심 수업... (Ministry of Education, 2015)”와 같이 서술하여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실천적 추론 학습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Oh et al., 2017). 그러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 제시된 교육내용은 기술적 내용을 다루는 객관주의 관점이 지배적이었고, 부분적으로 가치 추구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구성주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Oh et al., 2017).

Oh et al.(2017)에 의하면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은 비판적 추론 능력과 가치 판단 능력, 주도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에서도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생략)... (Ministry of Education, 2015)”라고 서술하여 항구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지식과 가치판단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제시된 교수방법에서도 “실과(기술·가정) 교수·학습 방법은 관련 내용에 따라 실천적 문제 해결학습, 프로젝트법, 문제 중심 수업... (Ministry of Education, 2015)”와 같이 서술하여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실천적 추론 학습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Oh et al., 2017). 그러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 제시된 교육내용은 기술적 내용을 다루는 객관주의 관점이 지배적이었고, 부분적으로 가치 추구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구성주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중 ‘성격’, ‘목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지향점에는 구성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비판과학 관점이,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의 지향점에는 객관주의 관점이 지배적 관점으로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교육내용이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과 함께, 구성주의 관점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3)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

실천적 문제는 실제 생활 장면에서 일어나고, 시간을 초월하여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이며, 가족의 영속적인 관심사로부터 이끌어 내어 인간생활에 존속하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Brown, 1978). 이러한 성격의 실천적 문제를 교육과정 구성의 중핵에 두고 내용을 조직화한 것이 바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이다(Lee & Yoo, 2008).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문제 혹은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결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적 사회적 탐구과정인 실천적 추론 과정을 모형의 핵심 사고과정으로 제안하고 있다(Yoo & Lee, 2010). 실천적 추론은 실천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사용되며 상호 연관된 일련의 지적 행위들로 이루어진다(Lee & Yoo, 2010). 그리고 일련의 지적 행위들은 실천적 추론과정으로서, 가치를 둔 목표, 문제의 맥락과 배경, 대안적 행동과 방법, 행동의 파급효과, 행동과 평가 등의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단계별로 순서대로 진행되는 사고 과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Yoo & Lee, 2010).

먼저, ‘가치를 둔 목표’ 단계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실천적 문제를 규명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할지를 생각해본다. ‘문제의 맥락과 배경’ 단계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문제를 둘러싼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 문제의 원인과 배경이 된 잘못된 가치, 편견 등이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대안적 행동과 방법’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들을 살펴보고 대안의 근거가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행동의 파급 효과’ 단계는 각 대안을 행동했을 경우, 나타나게 될 결과가 나, 가족,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고 설정한 가치 목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행동과 평가’ 단계는 가치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적절한 대안적 행동을 선택하여 실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한다(Yoo & Lee,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가정교과서에서 이러한 학습이 가능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3) 가정과 교육에서의 식생활 교육

가정교과는 학교식생활 교육의 주 담당교과로, 학습자가 식생활과 관련된 영양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식생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Kim & Lee, 2007).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가정교과의 식생활 영역은 영양학, 식품학, 조리학, 식문화 등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식생활 교육내용을 2015년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또한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으로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내었고, 이를 수업 활동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성취기준 중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경우, 성취기준 해설로 성취기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나타낸 학습요소도 제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 III.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및 분석 단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2015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12종의 교과서 중, 시장 점유율이 6% 이상인 교과서 6종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은 <Table 2>와 같다. 그리고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요소 중 식생활과 관련된 학습요소가 제시된 단원을 분석 단원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기술·가정 I」의 대단원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중 ‘청소년의 영양과 식생활’과, 「기술·가정 II」의 대단원 ‘가족의 생활과 안전’ 중 ‘식사 계획과 선택’,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를 분석 단원으로 선정하였다.

3) 이하 ‘구성주의 관점의 교육과정’

Table 2. Analysed textbooks

Textbook	Publisher	Year
중학교 기술·가정 I, II	CJ	2018
중학교 기술·가정 I, II	DA	2018
중학교 기술·가정 I, II	KS	2018
중학교 기술·가정 I, II	WN	2018
중학교 기술·가정 I, II	BS	2018
중학교 기술·가정 I, II	MN	2018

2. 분석 도구

1) 교육내용의 분석 준거

①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내용의 분석 준거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교육내용이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4단계를 거쳐 식생활 교육내용의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

1단계 :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학습요소를 <Table 3>과 같이 취합하였다.

2단계 : 성취기준 중 1단계의 학습요소를 부연 설명하는 수식어구에서 학습요소를 <Table 3>과 같이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성취기준 [9기가02-11] 중 학습요소 ‘식사계획’의 수식어구인 ‘가족 구성원의 요구,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한 끼’에서

‘가족의 요구, ‘영양적 균형’을 추출하였다.

3단계 : 성취기준에 대한 부연 설명인 성취기준 해설에서 학습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때 1, 2단계에서 추출한 내용과 중복될 경우, 생략하였고 학습요소는 맥락에 맞게 수정한 후, 간소화하여 <Table 4>와 같이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성취기준 해설 [9기가02-1] 중 ‘청소년기의 건강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저해하는 생활양식,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맥락에 맞게 ‘청소년 식생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생활양식, 심리적·사회적 문제)’으로 수정하였다.

4단계 : 1, 2, 3단계에서 추출한 학습요소를 <Table 5>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때 학습요소의 성격에 비추어 칸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고, 맥락에 맞게 단어를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식품 선택의 중요성’을 ‘식품 선택’으로 수정하였고, 해당 요소에서 칸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칸에 ‘건강 요인, 환경 요인’,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식품변질, 식품 위해 요소, 식중독 등)’, ‘식품 표시(식품 성분 표시, 유통기한)’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해당 내용 요소가 제시된 중단원명을 함께 제시하였다.

② 구성주의 관점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내용의 분석 준거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안내서인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guidelines(Laster, 1998)에 제시된 개념들

Table 3. Extraction process of learning factors in food and nutrition (Process 1, 2)

성취기준	1단계(학습요소)	2단계
[9기가02-1]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행동을 평가한다.	청소년기 영양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 영양 섭취 기준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 ·
[9기가02-2] 영양 섭취 기준과 식사 구성안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고, 가족의 요구를 분석하여 식사를 선택한 후 평가한다.	식사 구성안 균형 잡힌 식사 가족의 요구 분석	·
[9기가02-10]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활용한다.	식품 선택의 중요성 식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가족의 건강, 환경 ·
[9기가02-11] 가족 구성원의 요구,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한 끼 식사를 계획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여 조리한 후 평가한다.	식사 계획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조리	가족의 요구, 영양적 균형 ·

주. 학습요소는 음영 처리하였음.

Table 4. Extraction process of learning factors in food and nutrition (Process 3)

성취기준 해설	3단계
[9기가02-1]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및 급원 식품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건강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저해하는 생활양식,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여 식생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 *생략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및 급원 식품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생활양식, 심리적·사회적 문제)
[9기가02-10] 식품 변질, 식품 위해 요소, 식중독 등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유의하고 식품 성분 표시, 유통 기한을 참고하여 선택하는 등 식품 보관 및 관리 방법을 이해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한다.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식품변질, 식품 위해 요소, 식중독 등) 식품 표시(식품 성분 표시, 유통기한) 식품 보관 및 관리 방법 *생략

주. 성취기준 해설에서 학습요소는 음영 처리하였음.

Table 5. Analysis criteria on food and nutrition contents based on the 2015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Title of Unit	Learning factor
Adolescence nutrition and dietary behavior	Adolescent nutrition
	Importance of nutrition
	Types and functions of nutrients and source foods
	Nutrition problems in adolescence
Planning and choosing meals	Factors causing nutrition problems in adolescence (lifestyle, psychological and social problems)
	Dietary reference intakes
	My Plate plan
	Well-balanced diet
Food choices and safe cooking	Family needs analysis
	Food choices
	Health factor, environmental factor
	Factors that threaten food safety (Food deterioration, food hazards, food poisoning)
	Food labeling (food ingredient labeling, expiration date)
Safe storage and management of food	
Meal plan	Family needs, nutritional balance
Considering the hygiene and safety of cooking	

중, ‘영양과 건강’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 해결 과정별 개념들을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구성주의 관점의 교육과정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내용의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Table 6> 참조). 예를 들어 실천적 문제(영양과 건강) 관련 개념 중 학습요소 ‘스포츠 영양(sports nutrition)’, ‘임산·수유부의 영양(prenatal nutrition)’과 맥락 관련 개념 중 인간과 관련된 상황의 세부 학습요소 ‘운동(exercise)’은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 삭제하였다.

## 2) 내용 전달 방식의 분석 준거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식생활 교육내용의 전달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Table 7>과 같이 Hokkanen와 Kosonen(2013) 연구에 제시된 4가지 교육 내용 전달 방식(Pedagogical style), 즉, 중립적 정보제공(neutral information), 지시적 정보제공(informative and injunctive), 설득적 정보제공(informative and persuasive), 참여적 정보제공(informative and participative)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이 네 가지 방식은 모두 정보를 제공하지만, 학습주제를 문제화하는 방법이 다르고 학습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안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Table 6. Analysis criteria on food and nutrition contents based on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Process		Learning factor
Practical problem (nutrition and health)		Adequate nutrition
		Individual wellness
		Weight control
		Food practices
		Food attitudes and norms
		Food consumption patterns
Context concepts	Human condition	Nutritional needs
		Body composition
		Metabolism
		Food meanings
	Environmental condition	Cultural traditions
		Food norms
		Food availability
		Available resources(time, money, energy, equipment, supplies) Responsibilities
Valued ends concepts	Healthy nutritions	
	Clean and sanitary	
	Balanced diet	
	Developmental, appropriate diets	
Action concepts	Alternative	Diets and foods for nutrients
		Food for cultures
		Weight control methods
Consequence concepts	Effects of diets on developments, disease, family members, society and global resources	
	Effects of weight control methods on developments, disease, family members	
	Effects of eating practices on development, family, economy	
	Effects of food related laws	

Note. The author arranged standards of analysis based on Laster(1998)

Table 7. Analysis criteria on food and nutrition pedagogical style

Pedagogical style	Description	
	Text	Exercise
Neutral information	Information on phenomenon, no problem setting, no exhortation for action (goal is to learn/understand information)	questions with easy-to-find answers, no need for application/explanation
Informative and injunctive	Problem setting present/absent, solutions are presented to students with no explanations (sometimes explanations are presented, but discourse in commanding)	command for action
Informative and persuasive	Problem setting usually present, but explanations normally lead to one correct solution, that is strongly recommended to follow (goal is to justify action)	Questions that require explanations ('why' questions); however, answers are easy to find
Informative and participative	Problem setting present or finding the contradiction/problem setting is left to the student, problem setting open for debate, the correct action is left for the student to decide of multiple problem-solving possibilities are presented (goal is to consider different aspects of phenomenon, and creating solutions for problem)	Operational and activating, often call for consideration of students' own life and application of information

Source. Hokkanen, & Kosonen(2013, p.281)

그리고 Hokkanen와 Kosonen(2013)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득적 정보제공과 참여적 정보제공을 구성주의 관점의 내용 전달 방식으로 보았다. 단, 참여적 정보제공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른 문제로 학습자 간에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설득적 정보제공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하나의 문제 해결 방안을 따르도록 한다. 이에 설득적 정보제공은 구성주의 관점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정된 분석 준거는 가정교과교육 전문가 2인(교과교육학 전공 교수 1인, 교직 경력 10년의 가정교육 석사과정 교사 1인), 식생활 전공 교수 1인과 4차 협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과서의 내용분석 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양적 분석은 지면의 분량이나 단락, 문장, 단어의 수 등의 양적 지표로 설정한 분석 단위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질적 분석을 통해 문장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Krippendorff,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방법을 토대로 식생활 단원의 교육내용과 서술방식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 1) 교육 내용 분석

식생활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1단계(양적 분석) : 분석 준거 <Table 5>, <Table 6>을 기준으로 양적 분석을 하였다. 해당 학습요소가 1쪽 이상 서술되어 있거나 해당 요소가 단원명, 제제명으로 제시되면서 1/2쪽 이상으로 서술된 경우는 ○, 해당 학습요소가 1/2쪽 이하로 서술된 경우는 ◦, 해당 학습요소를 정의하는 수준으로 서술된 경우는 △, 해당 학습요소가 없을 경우는 X로 표시하였다. 이때 ○와 ◦의 경우는 학습요소를 충분히 다룬 것으로 정의하였

다. 그리고 교과서별, 내용 요소별로 합계를 내어 학습요소의 교육과정 반영 비율을 파악하였다.

2단계(질적 분석) : 교과서별로 해당 요소가 제시된 단락, 문장 등을 질적 분석하였다.

#### 2) 내용 전달 방식 분석

식생활 영역에서 내용 전달 방식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1단계 : Lee Y. S.(2010)의 교과서 분석 연구를 참고로 하여 교과서를 크게 본문과 활동과제로 구분하였다. 본문의 경우, 식생활 단원의 본문텍스트, 보충 및 심화 학습 자료, 그림/사진, 표 모두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활동과제의 경우, 대단원 도입, 중단원 도입, 소단원 도입, 소단원 활동과제,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에서 식생활 관련 활동과제를 추출하였다.

분석 단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문의 경우, 본문 텍스트는 한 단락을, 보충 및 심화 학습 자료, 그림/사진, 표는 각각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보충 및 심화 학습 자료가 한 단락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단락의 개수별로 비율을 나누어 각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활동과제의 경우, 한 코너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되, 한 코너를 구성하는 세부 문항의 개수별로 비율을 나누어 각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단계 : 1단계에서 설정한 분석 대상과 분석 단위를 토대로, <Table 8>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때, 하나의 분석 단위에서 내용 전달 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날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문과 활동과제에서 나타난 내용 전달 방식의 예시는 각각 <Table 8>, <Table 9>와 같다.

3단계 : 2단계에서 분석한 결과를 교과서별, 본문별, 활동과제별, 단원별로 분류하여 비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과서별로 내용 전달 방식을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분석 대상을 독립적으로 2회 분석한 후,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점검하였고, 이때 분석 결과가 상이한 표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재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분석 결과를 가정과 교육 전문가 2인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고, 그 결과가 다른 경우는 협의 과정을 거쳐 재분류하였다.

Table 8. Examples of different pedagogical styles in textbook texts

Pedagogical style	Example
Neutral information	섭식 장애는 음식 섭취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로, 체중 증가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마른 몸매에 대한 강한 욕구, 다이어트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A, p.54).
Informative and injunctive	녹색 채소를 데칠 때에는 채소가 잠길 정도의 충분한 양(채소 무게의 5배)의 물에 데쳐 단시간에 익히도록 한다(CII, p. 82).
Informative and persuasive	청소년기에 형성된 올바른 식행동은 일생의 식습관 형성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행동을 형성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B, p.41).
Informative and participative	잠깐! 자신의 현재 체중 상태를 진단해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생각해보자(A, p.53).

Table 9. Examples of different pedagogical styles in textbook exercise

Pedagogical Style	Example
Neutral information	우울하거나 무력감을 느낄 때 음식을 마구 먹어서 그 기분을 벗어나려 하는 섭식 장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C, p.52)
Informative and injunctive	아침 식사로도 든든하고 간식으로도 좋은 약식을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D, p.62).
Informative and persuasive	청소년기에 균형 잡힌 식사는 왜 중요할까?(EII, p.48)
Informative and participative	저녁 식사에서 섭취해야 할 식품군별 섭취 횟수를 기초로 저녁 식단을 작성해 보자(DII, p.52).

## IV. 결과 해석 및 논의

### 1.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 1)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내용의 현황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교육내용이 현행 가정과 교육과정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식생활 교육내용의 교육과정 반영 비율은 92.9%로, 분석 대상 교과서 중 두드러지게 교육과정 반영 비율이 낮은 D(71.4%)를 제외한 교과서들은 대체적으로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에서 추출한 14개의 학습요소 중 ‘건강 요인 및 환경 요인(D△)’,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A△, D△, F×)’, ‘식품 표시(D△)’, ‘가족의 요구 및 영양적 균형(D×)’ 등 4개의 학습요소는 불충분하게 반영되었거나(△),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 교과서들은 대체적으로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었지만, 각 학습요소들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를 질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되었다.

먼저, 학습요소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의 경우, 분석 대상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교과서 E가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는 주로 사회의 요인으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대중매체의 영향 등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 E(p.48)는 이러한 요인들은 물론 가공식품의 증가, 외식 산업의 발달, 가족의 구조와 형태의 변화 등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학습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대중 매체의 영향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식 행동을 하거나 영양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A, p.52; B, p.47; C, p.48; D, p.49; F, p.46).

또한, 학습요소 ‘식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의 경우, 교과서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강조하는 관점이

Table 10. Tendency of food and nutrition contents based on 2015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Title of Unit	Learning factor		Textbook						
			A	B	C	D	E	F	Sum
Adolescence nutrition and dietary behavior	Adolescent nutrition	Importance of nutrition	◎	◎	◎	◎	◎	◎	6
		Types and functions of nutrients and source foods	◎	◎	◎	◎	◎	◎	6
	Nutrition problems in adolescence		◎	◎	◎	◎	◎	◎	6
	Factors causing nutrition problems in adolescence (lifestyle, psychological and social problems)		○	○	○	○	○	○	6
Planning and choosing meals	Dietary reference intakes		◎	◎	◎	◎	◎	◎	6
	My plate plan		◎	◎	◎	◎	◎	◎	6
	Well-balanced diet		◎	◎	◎	◎	◎	◎	6
	Family needs analysis		◎	◎	◎	◎	◎	◎	6
Food choices and safe cooking	Food choices	Health factor, Environmental factor	◎	◎	○	△	○	○	5
		Factors that threaten food safety (food deterioration, food hazards, food poisoning)	△	◎	◎	△	○	X	3
		Food labeling (food ingredient labeling, expiration date)	◎	◎	○	△	○	○	5
	Safe storage and management of food		◎	◎	◎	◎	◎	◎	6
	Meal plan	Family needs, nutritional balance	○	○	○	X	◎	○	5
	Considering the hygiene and safety of cooking		◎	◎	◎	◎	◎	◎	6
Total <sup>1)</sup>			13	14	14	10	14	13	78
Ratio of learning factor based on 2015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sup>2)</sup> )			92.9	100	100	71.4	100	92.9	92.9

Note. 1) is adding the number of '◎', '○', and 2) is a ratio of 1) by learning factors.

달랐다. 즉, 분석 대상의 모든 교과서는 안전의 측면에서 해당 학습요소를 다루고 있었다(A II, p.58; B II, p.58; C II, p.76; D II, p.57; E II, p.64; F II, p.83). 그러나 ‘안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서(A, B), ‘안전’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서(C, E)도 있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를 하려면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관해야 한다(A II, p.58).

가공식품은 포장지에 제시된 보관 방법에 맞게 보관하여 안전하게 식품을 관리하고 소비하도록 한다(F II, p.83).

2) 구성주의 관점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내용의 현황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교육내용이 구성주의 관점의 교육과

정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식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반영 비율은 72.4%로 나타나 현행 교육과정에 기초한 반영률(92.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천적 문제 해결 과정 중 ‘가치 목표 관련 개념’이 반영 정도가 가장 높았고, ‘실천적 문제(영양과 건강) 관련 개념’, ‘행동(대안) 관련 개념’, ‘결과(파급 효과) 관련 개념’은 일부 학습요소의 반영 정도가 미흡했다. 특히, ‘맥락 관련 개념’은 반영 정도가 가장 낮았는데, 해당 학습요소의 과반수가 불충분하게 제시되었거나,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즉, ‘실천적 문제(영양과 건강) 관련 개념’의 2개 요소, ‘맥락 관련 개념’의 8개 요소, ‘행동(대안) 관련 개념’의 1개 요소, ‘결과(파급 효과) 관련 개념’의 2개 요소 등 총 13개의 학습요소가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1. Tendency of food and nutrition contents based on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Process	Learning factor	Textbook						sum	
		A	B	C	D	E	F		
Practical problem (nutrition and health)	Adequate nutrition	◎	◎	◎	◎	◎	◎	6	
	Individual wellness	◎	○	△	△	△	○	3	
	Weight control	○	○	○	○	○	○	6	
	Food practices	◎	◎	◎	◎	◎	◎	6	
	Food attitudes and norms	△	X	△	△	△	△	0	
	Food consumption patterns	○	○	○	○	○	○	6	
Context concepts	Human condition	Nutritional needs	○	◎	◎	◎	○	◎	6
		Body composition	○	○	○	△	○	○	5
		Metabolism	○	△	△	△	△	△	1
		Food meanings	○	△	○	○	○	○	5
	Environ-mental condition	Cultural traditions	○	X	○	○	○	○	5
		Food norms	X	X	X	X	X	X	0
		Food availability	◎	○	○	X	X	X	3
		Available resources(time, money, energy, equipment, supplies)	○	○	○	△	○	○	5
Responsibilities	○	○	△	○	○	○	5		
Valued ends concepts	Healthy nutritions	◎	◎	◎	◎	◎	◎	6	
	Clean and sanitary	◎	◎	◎	◎	◎	◎	6	
	Balanced diet	◎	◎	◎	◎	◎	◎	6	
	Developmentally appropriate diets	○	○	○	○	○	○	6	
Action concepts	Alternative	Diets and Foods for nutrients	◎	◎	◎	◎	◎	◎	6
		Food for cultures	○	X	X	X	X	○	2
		Weight control methods	○	◎	○	○	◎	○	6
Consequence concepts	Effects of diets on developments, disease, family members, society and global resources		○	○	○	○	◎	◎	6
	Effects of weight control methods on developments, disease, family members		△	△	△	△	○	△	1
	Effects of eating practices on development, family, economy		○	○	○	○	○	○	6
	Effects of food related laws		X	X	X	X	X	X	0
Total <sup>1)</sup>		22	18	18	16	19	20	113	
Ratio of learning factor based on pratical problem-focused curriculum(% <sup>2)</sup> )		84.6	69.2	69.2	61.5	73.1	76.9	72.4	

Note. '1)' is adding the number of '◎', '○', and '2)' is a ratio of 1) by learning factors.

먼저, '실천적 문제(영양과 건강) 관련 개념'의 경우, '건강(C△, D△, E△)', '식품 관련 태도와 규범(A△, BX, C△, D△, E△, F△)' 등의 학습요소가 불충분하게 제시되었거나,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맥락 관련 개념'의 경우, '신체 구성(D△)', '신진대사(B△, C△, D△, E△, F△)', '식품의 의미(B△)', '식문화(BX)', '식생활 관련 규범(AX, BX, CX, DX, EX, FX)', '식품의 이용가능성(DX, EX, FX)', '식생활

을 둘러싼 자원(D△)', '환경에 대한 책임(C△)' 등의 학습요소가 불충분하게 제시되었거나,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행동(대안) 관련 개념의 경우는, '식문화를 고려한 식사 관련 행동(BX, CX, DX, EX)', 결과(파급 효과) 관련 개념의 '체중 조절 방법이 발달, 질병, 가족 등에 미치는 영향(A△, B△, C△, D△, F△)', '식품 관련법의 영향(AX, BX, CX, DX, EX, FX)' 등의 학습요소가 불충분하게 제시되었거나,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 교과서들은 비교적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학습요소는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이 개념 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 각 학습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를 질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천적 문제(영양과 건강) 관련 개념에 해당하는 학습요소 ‘식품 관련 태도와 규범’의 경우, ‘식품 관련 태도’는 개인, 가족, 사회에서 유지되어 온 상호 관련된 일련의 생각들과 감정을 의미하는 태도 불구하고(Staalnd & Strom, 1996), B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는 식품을 즐거움의 수단으로만 다루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식사는 먹는 즐거움을 준다(C, p.42).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 가족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다(AII, p.60; CII, p.78; DII, p.59; FII, p.86).

실천적 문제는 항구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개인 및 가족 단위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Yoo, Jang, Kim, Kim, & Kim, 2004). 그러므로 실천적 문제 관련 개념에 해당하는 학습요소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실천적 문제 관련 개념에 해당하는 학습요소인 ‘식품 관련 태도와 규범’도 개인, 가정,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식품은 유희와 즐거움의 수단일 수 있으며, 음식은 타인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Staalnd & Strom, 1996). 그러나 B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식품 관련 태도와 규범’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

학습요소 ‘환경에 대한 책임’에서 ‘환경’은 일반적으로 식생활을 둘러싼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의미한다. 또한 식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 등의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해야 한다(Montgomery, 1999). 그러나 분석 대상의 모든 교과서는 해당 학습요소와 관련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줄이기 등 자연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AII, p.54; DII, p.55; EII, p.60).

가치 목표는 대안적 행동과 방법을 찾을 때와, 행동을 평가할 때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Yoo & Lee, 2010), 이와 관련된 학습요소는 모든 교과서에서 단원명, 제재명 또는 학습목표로 제시되어 강조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을 고려한 식품 선택(AII, p.55; BII, p.55; CII, p.72; FII, p.79)”,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관리(EII, p.60)” 등과 같이 단원명 또는 제재명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AII, p.46; BII, p.54; CII, p.72; FII, p.79; EII, p.60).”와 같이 학습목표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학습요소 ‘체중 조절 방법이 발달, 질병, 가족 등에 미치는 영향도 E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불충분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으로 섭식 장애가 나타난다(A, p.54; C, p.51; E, p.49)”와 같이 체중 조절 방법이 발달,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체중 조절 방법과 관련하여 가족,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학습요소 ‘식품 관련법의 영향’의 경우, 모든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었다. 일부의 교과서(EII, p.51, DII, p.58)에서는 “16세 이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되어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하면 안된다(EII, p.51).”와 같이 식품 관련법에 관하여 다루고 있었으나, 여전히 식품 관련법이 개인, 가족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부의 교과서(E, D)는 식품 관련법의 목적이나 내용만 제시하고 있었고, 식품 관련법이 개인, 가족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 3)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한 논의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식생활교육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 및 건강한 삶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 이해,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행동을 통한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과 생활 자립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따라서 객관주의 관점의 식생활 교육내용과 구성주의 관점의 식생활 교육내용 중, 어느 관점의 교육내용으로 학습하는 것이 이러한 구성주의 관점의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2015 개정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교육내용에서는 구성주의 관점의 교육과정 반영률(72.4%)이 객관주의 관점의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반영률(92.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구성주의 관점의 교육과정 중 ‘가치 목표 관련 개념’ 학습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학습요소들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맥락 관련 개념’ 학습요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구성주의 관점과 객관주의 관점이 혼재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식생활 교육내용은 객관주의 관점이 지배적이라, 학습요소가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항구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념보다는, 가정학 분야에 중요하고 일반화된 사실과 관련된 개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89).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제시된 실천적 문제는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구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후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Oh et al., 2011). 그러므로 식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사회, 문화, 역사, 상황적 성격을 지닌 구성주의 관점의 식생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교육내용은 현행 교육과정의 식생활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2015 개정 가정교과서의 교육내용의 기초가 되는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대체적으로 객관주의 관점이 지배적이었고, 그 외 교육과정의 구성요소 ‘성격’, ‘목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구성주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는 Oh et al.(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교육과정 구성요소인 성격, 목표, 교육내용, 교수 방법 및 평가 간에 관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 구성요소들이 특정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내적 일관성이 저해된다. 이에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로 달성 가능한 교육의 목표가 성취되기 어렵다(Brown, 1978). 또한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관점의 혼재는 교사들에게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 설계 및 실행의 방향성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교사들은 청소년이 직면할 수도 있는 식생활 문제를 수업상황으로 가져와 해결과정에 중점을 두고 안내할 것인가, 또는

청소년이 직면할 수도 있는 식생활 문제와 관련된 지식에 중점을 두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주의 관점의 식생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주의 관점의 식생활 교육내용을 구성주의 관점의 식생활 교육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과서 교육내용의 기초가 되는 교육과정부터 구성주의 관점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구성주의 관점의 학습요소인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맥락과 배경, 해결 방안, 그리고 파급효과와 관련된 내용요소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 2.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영역의 내용 전달 방식

### 1) 식생활 영역 본문의 내용 전달 방식에서 본 구성주의 관점의 반영 현황

식생활 단원 중 본문의 교육내용을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철학인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그 결과, 본문의 내용 전달 방식은 ‘중립적 정보제공(59.9%)’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단지 주어진 현상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유형으로 행동까지 옮기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설득적 정보제공(21.4%)’, ‘지시적 정보제공(18.0%)’, ‘참여적 정보제공(0.7%)’ 유형 순이었다. 이 중,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설득적 정보제공’ 유형과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을 살펴보면, 22.1%(설득적: 21.4%, 참여적: 0.7%)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학습자가 문제 설정도 가능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제시되어 학습자가 다양한 행동들 중 최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은 0.7%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교과서의 본문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본문의 교육 내용 전달 방식을 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영양과 식행동’ 단원 중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 관련 학습요소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교과서 간 차이를 보였다. 즉, D를 제외한

Table 12. Tendency of pedagogical style in food and nutrition texts based on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Pedagogical Style	Text book						Sum
	A	B	C	D	E	F	
Neutral information	61 (57.0%)	68 (59.7%)	52 (59.1%)	51.33 (62.6%)	60.75 (62.6%)	60.58 (59.5%)	353.66 (59.9%)
Informative and injunctive	20.50 (19.2%)	14 (12.3%)	18 (20.55%)	10.33 (12.6%)	20 (20.6%)	23.33 (22.9%)	106.16 (18.0%)
Informative and persuasive	23.50 (22.0%)	31 (27.2%)	18 (20.5%)	20.33 (24.8%)	15.25 (15.7%)	18.08 (17.7%)	126.16 (21.4%)
Informative and participative	2 (1.97%)	1 (0.9%)	0 (0%)	0 (0%)	1 (0.9%)	0 (0%)	4 (0.7%)
Portion based on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sup>1)</sup>	25.50 (23.8%)	32 (28.1%)	18 (20.55%)	20.33 (24.8%)	16.25 (16.9%)	18.8 (17.4%)	130.16 (22.1%)
Total	107 (100%)	114 (100%)	88 (100%)	82 (100%)	97 (100%)	102 (100%)	102 (100%)

Note. 1) is adding the number of 'informative and persuasive', 'informative and participative'

모든 교과서는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를 제시하여 식생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올바른 식생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따르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D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설득적 정보제공' 유형으로 주로 서술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교과서 D는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 제시, 문제 해결의 필요성만을 제시하여 '중립적 정보제공' 유형으로 주로 서술되고 있었다(D, p.51).

그리고 단원 '청소년의 영양과 식행동' 중 학습요소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및 함유 식품'을 다루는 부분에서 교과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B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문제 설정 없이 영양소의 특징에 관한 정보만을 제시하여 '중립적 정보제공'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교과서 B는 비타민의 특징을 설명한 후, 비타민 D 합성의 필요성과 비타민 부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적 정보제공' 유형으로 서술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다(B, p.44).

## 2) 식생활 영역 활동과제의 내용 전달 방식에서 본 구성주의 관점의 반영 현황

식생활 영역 중 활동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에서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철학적 관점인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그 결과, 활동과제의 내용 전달 방식은 '참여적 정보제공

(60.4)'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유형은 학습자의 삶을 고려하고, 정보를 적용하여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과제이다. 그리고 설명이나 적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쉽게 교과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중립적 정보제공(37.9%)' 유형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설득적 정보제공(1.5%)', '지시적 정보제공(0.2%)' 유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설득적 정보제공' 유형과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은 61.9%(설득적: 1.5%, 참여적: 60.4%)로 전체 활동과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교과서의 활동과제는 비교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활동과제의 교육 내용 전달 방식을 질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되었다. 먼저, 분석 대상의 모든 교과서에서는 나의 삶을 고려하는 문제로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켜 고차원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참여적 정보제공'형의 활동과제가 많았다(A, p.55; BⅡ, p.47; C, p.52; D, p.50; E, p.52).

그리고 D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의 경우, '식사의 계획' 단원과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 단원에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고려하는 문제로 구성된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의 활동과제도 존재하였다(AⅡ, p.53; BⅡ, p.51; EⅡ, p.66; F, p.91).

구성주의 관점의 가정과교육에서는 학습자가 개인과 사회

Table 13. Tendency of pedagogical style in food and nutrition exercises based on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Pedagogical style	Text book						Sum
	A	B	C	D	E	F	
Neutral information	4.6 (20.9%)	17.3 (39.2%)	15.2 (38.0%)	13.7 (62.1%)	11.5 (29.5%)	14 (41.2%)	76.31 (37.9%)
Informative and injunctive	0 (0%)	0 (0%)	0 (0%)	0.3 (1.5%)	0 (0%)	0 (0%)	0.3 (0.2%)
Informative and persuasive	0 (0%)	0 (0%)	2 (5%)	0 (0%)	1 (2.6%)	0 (0%)	3 (1.5%)
Informative and participative	17.4 (79.1%)	26.9 (60.8%)	22.8 (57.0%)	8 (36.4%)	26.5 (68.0%)	20 (58.82%)	121.6 (60.4%)
Portion based on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sup>1)</sup>	17.4 (79.1%)	26.9 (60.8%)	24.8 (62.0%)	8 (36.4%)	27.5 (70.5%)	20 (58.8%)	124.6 (61.9%)
Total	22 (100%)	44.3 (100%)	40 (100%)	22 (100%)	39 (100%)	34 (100%)	201.3 (100%)

Note. 1) is adding the number of 'informative and persuasive', 'informative and participative'

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 가족,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판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Staaland & Strom, 1998). 즉, 가정교과서에 삶과 관련하여 ‘나’, ‘가족’, 더 나아가 ‘사회’를 고려한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의 활동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의 모든 교과서에서는 삶과 관련하여 ‘나’, ‘가족’, 더 나아가 ‘사회’를 고려한 문제로 사고를 확장시키는 활동과제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교과서 E가 유일하게 “청소년의 균형 잡힌 식사는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EII, p.54-55)”와 같이 2쪽에 걸쳐 실천적 문제해결 활동 코너가 제시되고 있었다. 이 활동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식생활 문제 상황을 파악한 후, 바람직한 목표 설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 실천 및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실천적 문제해결 활동도 활동과제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에 일부로 포함되고 있었다.

### 3. 식생활 영역의 내용 전달 방식에 대한 논의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식생활 교육 목표를 잘 성취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본문이나 활동과제를 제시할 때, 객관주의 관점이 내재된 중립적 정보제공 또는 지시적 정보제공으로 교육내용을 전달되는 것이 좋은지, 구성주의 관점이 내재된 참여적 정보 제공 또는 설득적 정보제공으로 교육내용을 전달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식생활교육의 목표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안전 및 건강한 삶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 이해,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행동을 통한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따라서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거나, 학습자에 의해 문제 상황이 설정되며 학습자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후,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으로 교과서가 서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활동과제의 경우,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이 절반 이상(60.4%)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본문의 경우,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0.7%). 따라서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식생활 교육에서 추구하는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과서는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게다가, 본 연구의 분석 준거로 사용된 내용 전달 방식 중 중립적 정보제공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주어진 현상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시적 정보제공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문제의 해결방

안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중립적 정보제공과 지식적 정보제공은 문제 상황의 제시가 미흡하여 실제 상황성이 존재하지 않는 탈맥락화된 학습내용으로 서술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설득적 정보제공은 학습자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하나의 문제 해결 방안을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득적 정보제공과 참여적 정보제공 모두 구체적 상황에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설득적 정보제공과 참여적 정보제공은 구성주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참여적 정보제공은 문제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을 고려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구성주의 학습을 장려할 수 있다(Hokkanen & Kosonen, 2013). 그러므로 구성주의 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교과서는 구성주의 관점의 내용 전달 방식으로 서술하되 특히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구성주의 관점의 내용 전달 방식 중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의 경우, ‘나’, ‘가족’을 고려한 활동과제는 많았으나, ‘사회’를 고려한 활동과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구성주의 관점의 가정교육에서는 학습자가 개인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 가족,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판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Staland & Strom, 1996). 그러므로 가정교과서의 참여적 정보제공의 활동과제로는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식생활 교육목표가 지향하는 구성주의 관점의 가정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 활동과제의 경우, ‘나’, ‘가족’의 삶을 적용하는 활동과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고려하는 활동과제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과 내용 전달 방식을 분석하여, 식생활 영역

에서 가정교과서가 구성주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기술·가정」 교과서 6종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내용과 교육내용의 전달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교육내용을 검토한 결과, 객관주의 관점이 내재된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반영률은 92.9%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교과서 중 두드러지게 낮은 D(71.4%)를 제외한 교과서들은 대체적으로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학습요소별로 살펴보면 14개 학습요소 중 4개의 학습요소-‘건강 요인 및 환경 요인’,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식품 성분 표시 및 유통기한’, ‘가족의 요구 및 영양적 균형’-가 불충분하게 반영되었거나,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구성주의 관점이 내재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반영률은 72.4%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교과서 중 A에서 반영률(84.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B(69.2%), C(69.2%), D(61.5%) 교과서는 평균 이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학습요소별로 살펴보면 26개 학습요소 중 13개 학습요소가 불충분하게 반영되었거나,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실천적 문제 해결과정별로 보면, ‘가치 목표 관련 개념’ 학습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학습요소들-‘실천적 문제(영양과 건강) 관련 개념’, ‘맥락 관련 개념’, ‘행동(대안) 관련 개념’, ‘결과(급급효과) 관련 개념’-은 불충분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맥락 관련 개념’ 학습요소가 충분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분석 대상 교과서들은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학습요소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도, 학습요소가 개념 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맥락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만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학습요소를 충분히 다루고 있더라도 교과서에 따라 다루는 내용이 다르거나, 사회적 관점이 배제되어 있었다.

둘째, 가정교과서 식생활 단원 본문의 교육내용을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중립적 정보제공(59.9%)’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설득적 정보제공(21.4%)’, ‘지식적 정보제공(18.0%)’, ‘참여적 정보제공(0.7%)’ 유형 순이었다. 이 중,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설득적 정보제공’ 유형과 ‘참여적 정보제

공' 유형은 22.1%(설득적: 21.4%, 참여적: 0.7%)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학습자에게 다양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다양한 대안들 중 최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은 0.7%로 매우 제한적으로, 분석 대상의 모든 교과서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했다.

또한,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영역에서 활동과제의 내용 전달 방식을 검토한 결과, '참여적 정보제공(60.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중립적 정보제공(37.9%)', '설득적 정보제공(1.5%)', '지시적 정보제공(0.2%)' 순이었다. 특히,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설득적 정보제공' 유형과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의 활동과제가 약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비율 중 거의 전체가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으로, 현행 가정교과서의 활동과제를 통해 구성주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보였다. 그러나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의 경우, 자신 및 가족의 삶을 고려한 활동과제는 많았으나, 사회적 관점까지 고려한 활동과제는 거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교과서가 식생활 영역에서 구성주의 학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객관주의 및 구성주의 관점이 혼재된 식생활 교육내용으로는 구성주의 학습을 증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행 교육의 식생활 교육내용은 구성주의 관점이 내재된 목표 즉, 개인과 가족의 안전 및 건강한 삶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 이해를 통한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것과 일관되도록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반영된 구성주의 관점의 학습요소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가정교과서의 본문에는 중립적 정보제공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활동과제에는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사회적 관점을 고려한 문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성주의 학습을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가정교과서의 본문을 서술할 때,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거나, 학습자가 문제 상황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다양한 측면과 맥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과제 역시 사회적 관점을 고려한 참여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 코너에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구성주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본문과 관련지어 학습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는 안내할 필요가 있다. 즉, 구성주의 관점이 내재된 학습방법인 실천적 추론 수업을, 청소년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식생활 관련 실천적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실천적 추론 과정별로 단계적 학습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이 학습과정에서 사회적 관점까지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되지만, 집필진이 가진 관점이나 지식에 따라 교과서의 교육 내용과 내용 전달 방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진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 검정 시 단순히 내용요소의 유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내용 전달 방식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현행의 검정 지침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교육 현장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식생활 교육내용 및 내용 전달 방식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현장의 가정교과사들이 교과서를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가정과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현행 교과서 활용 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 시 구성주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HEA]. (1989). *Home Economics concepts: A base for curriculum development*. Alexandria VA.
- Baldwin, E. E. (1989). A critique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s. In F. Hultgren, F. H., & D. L. Coomer (Eds.), *Alternative modes of inquiry in home economics research: Yearbook, 9/1989* (pp. 236-250). Peoria, IL:

- Glencoe Publishing.
- Brown, M. M. (1978).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rules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Madison, WI: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Cho, Y. N. (2008). Comparative research on the instructional design model of constructivism and objectivism.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6(3), 67-92.
- Choi, Y.-J., Chae, J.-H., & Park, M.-J. (2009). A study on the curriculum perspectives of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and the home economics teacher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1(1), 89-106.
- Hokkanen, S., & Kosonen, A.-L. (2013). Do Finnish home economics and health education textbooks promote constructivist learning in nutritio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7(3), 279-285.
- Jang, W. M., & Kim Y. K. (2017). Content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unit in middle school textbooks of home economics - focus on the national curriculums from 1st to 2009 revised.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0(2), 93-112.
- Kang, I. A. (1997). *왜 구성주의인가? 정보화 시대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Why constructivist?: Information age and learner-based educational environment]. Seoul: Munumsa.
- Kim S. Y., & Lee S. Y. (2007). A study on the recognition with respect to the food and nutrition section of th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4), 1-15.
- Kim, Y.-H. (2010). A study on the eating behaviour and nutrition knowledg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satisfaction of dietary life instruction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2(3), 117-128.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0).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연구의 종합적 검토*. [A comprehensive review of Korean textbooks on foreign textbooks]. No. RR90-23.
- Krippendorff, K. (1980).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London: Sage.
- Laster, J. F. (1998). Principles of teaching practice i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In S. S. Redick, A. Vail, B. P. Smith, R. G. Thomas, P. Copa, C. Mileham, J. F. Laster, C. Fedje, J. Johnson, & K. Alexander (Ed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A chapter of ASCD the curriculum handbook* (pp. 45-55).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Lee, B.-D., & Kim, J.-H. (2010). Analysis of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knowledge - with focus on the number and operation contents in 1st and 2nd grades.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13(3), 415-442.
- Lee, K. A. (2015). Current status of out-of-school dietary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8(4), 305-326.
- Lee, M.-J., & Yoo, T.-M. (2010). Analysis of the practical reasoning process presented in Home Economics textbooks of 2007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2(4), 109-138.
- Lee, S.-H. (2010). Future tasks and alternative teaching-Learning strategies to make the best use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secondary schools based on the newly revised 2007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2(2), 133-153.
- Lee, S.-H., & Yoo, T.-M. (2008). Focus group interview for the development of an in-service educational program on the practical problem focu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3), 107-129.
- Lee, Y.-S. (2010). An analysis on the units of 'adolescence self-management' and 'adolescence consumption life'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used in middle schools: focusing on how the emphasis of the 2007 curriculum revision is reflected.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2(3), 55-75.
- Ministry of Education. (2015).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Home Economics-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 Montgomery, B. (1999). Continuing concern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In J. Johnson & C. Fedje (Ed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Toward a critical science approach* (pp. 80-90). Peoria, IL: Glencoe/McGraw-Hill.

- Montgomery, B. (2008). Curriculum Development: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26 (National Teacher Standards 3), 1-16.
- Oh, K.-S., Ha, J. S., & Lee, S.-H. (2017). Review and alternatives to the internal consistency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mponents : focused on the clothing & textiles a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9(3), 44-75.
- Oh, K.-S., Lee, K.-Y., & Lee, S.-H. (2011). The contents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the 2007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3(3), 91-119.
- Park, T. H.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riting theory in terms of constructivism paradigm: focused on the writing theory of cognitive constructivism and the writing theory of social constructivism.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 62-95.
- Ryu, S. H. (2000). The study on constructivist approach to family lif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3(3), 99-113.
- Staaland, E., & Strom, S. (1996). *Family, Food, and Society: A Teacher's Guide*.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Madison, Wisconsin.
- Yang, S. J., Chae, J. H., Yu, N. S., & Park, M. J. (2015). The analysis of duplicated contents of 'Food and Nutrition unit' of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 textbook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1), 31-50.
- Yoo, T.-M. (2006). The nature of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8(4), 7-28.
- Yoo, T.-M., Chang, H. K., Kim, J. Y., Kim, H. A., & Kim, H. S. (2004). 실천적 가정과 수업 I. [*The Practical Home Economics Instruction I*]. Seoul: Shinkwang.
- Yoo, T.-M., & Lee, S.-H. (2010).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 consumer sciences instruction-the theory & practice*. Seoul: Bookkorea.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과 내용 전달 방식을 분석하여,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영역이 구성주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기술·가정」교과서 12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식생활 교육내용은 객관주의 관점의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과 구성주의 관점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기초로 각각 추출한 학습요소를 준거로 분석하였다. 교육내용의 전달 방식은 본문과 활동과제를 중립적, 지시적, 설득적, 참여적 정보제공의 네 가지 유형을 준거로 분석하였다. 이 중 설득적,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은 구성주의 관점의 내용 전달 방식에 해당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반영률은 분석 대상 교과서 평균 92.9%로, 학습요소 14개 중 평균적으로 13개의 학습요소가 분석 대상의 교과서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었다.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반영률은 분석 대상 교과서 평균 72.4%로, 학습요소 26개 중 평균적으로 약 18개가 분석 대상의 교과서에서 비교적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실천적 문제 해결과정별로 보면, ‘가치 목표 관련 개념’에 해당하는 학습요소를 제외한 ‘실천적 문제(영양과 건강) 관련 개념’, ‘맥락 관련 개념’, ‘행동(대안) 관련 개념’, ‘결과(파급효과) 관련 개념’에 해당하는 학습요소는 불충분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맥락 관련 개념’에 해당하는 학습요소는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분석 대상 모든 교과서에는 학습요소들이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맥락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점이 배제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식생활 영역의 내용 전달 방식을 분석한 결과, 본문에서는 구성주의 관점의 내용 전달 방식이 22.1%(설득적: 21.4%, 참여적: 0.7%)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립적 정보제공 유형(59.9%)’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활동과제에서는 구성주의 관점의 내용 전달 방식이 61.9%(설득적: 1.5%, 참여적: 6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적 정보제공’ 유형의 경우에도, 자신 및 가족의 삶을 고려한 활동과제는 많았으나, 사회적 관점까지 고려한 활동과제는 전무했다. 결론적으로, 현행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영역은 구성주의 학습을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논문접수일자: 2019년 10월 2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14일